

세기의 하늘에 인간주의의 깃발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05년 1월 26일

세계적인 위협을 타개할 힘은 '얕음을 버리고 깊음을 따르는' 정신에

대화의 힘으로 '평화의 왕도'를 열어라!

국제참가학회(SGI) 발족 30주년을 기념해 제 소감의 일단을 말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공생을 위한 확실한 방도를 모색해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해안의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께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미증유의 큰 재해로 피해를 심대하게 겪은 나라들이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체제가 불가결하기에 더 한 층의 협력을 깊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여러분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희망과 안온의 생활을 되찾으시도록 복구와 부흥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안전보장정책을 우선하는 세계

2001년 9월, 미국에서 일어난 대폭발 테러 사건(9·11 동시다발 테러사건) 이래 세계에서는 지구 전체에 걸친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테러에 대항하는 형태로 많은 나라에서 안전보장정책을 우선하는 가운데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생기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시민생활 속에 계속 확산되는 현실은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위협에는 그 이상의 무한성이 느껴집니다. 이는 상대방의 모습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종결될지 전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까닭에 군사행동이나 치안조치를 아무리 강구해도 안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정세도 여전히 혼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임시정부에 주권을 이양했지만, 각지에서 무력충돌과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번 1월 30일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의 성공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덧붙여 암초 위에 놓인 중동평화의 행방과 북한 핵개발 문제의 교착화, 빈발하는 지역분쟁 등 불안정 요인이 서로 겹쳐 ‘전쟁과 폭력의 20세기’ 재래(再來)를 염려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근년에 많은 나라에서 ‘안전보장’을 우선시한 나머지, 군축(軍縮)은커녕 군확(軍擴)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강해져 치안우선을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빈곤과 환경파괴라는, 다른 지구적 문제군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자꾸 늦어져 사람들의 생활과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음은 테러 시대가 초래한 또 하나의 커다란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가.

물론 ‘마법의 지팡이’로 한번 휘두르면 끝나는 그런 타개책은 없고, 전도는 험난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문답무용(問答無用)의 폭력에 어떻게 감연히 대처하면 좋은가라는 아포리아(난문<難問>: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연히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문제인 이상, 인간의 손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고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노력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한, 타개할 길은 반드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대의 열쇠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는 ‘대화’라는 두 글자입니다.

“대화야말로 평화의 왕도”라 함은 인류사가 멈추지 않는 한 영원히 짊어져야만 하는 숙제가 아닐까요.

아무리 그럴싸한 반론이나 냉소를 당하더라도 이 절규를 최후까지 부르짖는 기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20년 전 이 제언에서 언급한, 경애하는 시성 타고르의 말을 한번 더 반복하고자 합니다.

가능이 불가능에게 질문한다, “그대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기력한 자의 꿈속입니다”라는 대답이었다.(타고르 저서)

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족한 SGI

돌이켜 보면 SGI를 발족한 1975년은 제4차 중동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여신(餘燼: 무슨 일이 끝난 뒤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나 영향을 비유하는 말)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서방측 여러 나라가 서밋을 처음 개최해 결속을 굳히는 한편, 동쪽 진영 내에서 중소대립이 격해지는 등 세계의 분열이 심각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SGI 발족에 앞서 그 선구적인 역할로, 1974년 중국과 소련을 잇따라 처음 방문해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있던 양국 정상과 성심성의껏 대화를 거듭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소련 사람들에 대한 적대의식이 격렬해 “왜 종교인이 종교를 부정하는 나라에 가는가”라는 비판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약 3할을 차지하던 사회주의국가의 존재를 무시한 채 세계 평화를 전망할 수 없기에 그 상태를 하루 속히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 불법자(佛法者)로서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소련 공습에 대비해 지하에 방공호를 만드는 베이징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본 저는, 3개월 후에 만나 빈 코시긴 총리에게 “중국은 소련의 태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의향도, 고립시킬 의향도 없습니다”라는 총리의 답변을 들은 저는 또다시 중국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뵈고 중일 양국이 우호를 깊이 다져 함께 세계를 위해 행동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1월에는 미국을 방문해서 창가학회(創價學會) 청년부가 실시한 핵폐기 1천만 서명을 유엔본부에 전달하고 키신저 국무장관과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소용돌이를 한창 넓히는 가운데 30년 전 오늘 1월 26일,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 중 한 곳인 광둥 51개국·지역의 대표가 모여, ‘민중에 의한 일대(一大) 평화세력’ 구축을 목표로 SGI가 출발했습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화야말로 평화의 왕도’라는 신념대로 전진했습니다.

저도 분단으로 치닫는 세계를 위해 우정과 신뢰로 맺는 ‘인간외교’와 문화·교육 분야의 폭넓은 ‘민중교류’ 추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세계 지도자와 대화를 거듭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유교를 비롯한 모든 사상적·문화적·종교적 배경을 지닌 석학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21세기 인류에게 요청되는 대화를 성립하는 기반은 역시 ‘결합은 선(善), 분단은 악(惡)’을 신념으로 삼는 ‘인간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이외에 길은 없다는 것이 제 변함없는 결론입니다.

분단의 세계를 결합해 온 SGI

제 나름대로 솔선해 온 그러한 인간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의 궤적을 총괄하면서 새삼 통감한 것은 수많은 분쟁의 근원인 과격주의(익스트리미즘), 교조주의(도그머티즘)를 어떻게든 인간주의의 방향으로 궤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잇따라 일어나는 테러, 보복 전쟁 그리고 민족이나 종교가 복잡하게 뒤얽힌 분쟁을 눈앞에 대하면, 그 궤도수정은 난감하기 그지없는 난(難)사업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트림 탭(Trim tab)’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해럴드 윌렌스 《핵을 중지시키는 힘》)

‘트림 탭’이란 항공기 날개나 요트 용골에 붙어 있는 작은 플랩(보조날개)으로, 이것을 조작해 기체(機體)나 선체(船體)의 균형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림 탭’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며 그것이 주요 키에 연결돼 배의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인간주의의 힘은 이 ‘트림 탭’의 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과격주의나 교조주의에 대한 인간주의라는 도식(圖式)도, 주의(主義)와 주의가 대치하는 그런 망막한 대립은 결코 아니며, 어디까지나 그것을 체현한 인간끼리 본심을 털어놓은 일대일 대화야말로 원점이며 실상입니다.

정상외교부터 다양한 민간 외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대화란,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대인 휴머니스트며 ‘대화의 철학자’라 불린 마르틴 부버가 말한 ‘좁은 산등성이’(충분히 연마한 정신의 긴장을 요하고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가파르고 험준한 곳으로 굴러 떨어질지도 모를 산등성이)에서 진검승부로 대하는 만남을 기조(基調)로 합니다.

그 일파(一波)를 이파(二波), 천파, 만파로 확대해 대화와 인간주의의 거대한 물결 속에 과격주의나 교조주의의 덩어리를 포용합니다. 그리하여 불꽃 튀는 듯한 만남과 대화의 정신투쟁으로 인간을 일일이 얽매고 구속하는 구애의 매듭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 풀어내는 힘든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축적은 ‘트림 탭’의 작은 힘이 거대한 기체나 선체를 움직이듯이 반드시 시류(時流)의 궤도수정으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격주의나 교조주의라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일신 교적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만, 그런 정신풍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 만반에 걸쳐 볼 수 있는 입니다.

과격주의와 비교적 멀다고 여겨지는 불교에서도 뒤에 기술하듯이 ‘과격주의의 덩’과 결코 인연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에 한하지 않고 20세기에 맹위를 떨친 정치 이데올로기 대부분이 이러한 ‘덜’에 걸린 것은 우리 기억에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이즘(ism)의 공죄(功罪: 잘한 일과 잘못된 일. 좋은 점과 나쁜 점)’입니다.

대개 (광범위한 뜻으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즘’이라는 속성을 지니며,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즉 ‘공(功)’의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을 하나로 속박하는 구속성 측면이 있어 그것이 고조되면 ‘이즘’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역도(逆倒)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죄(罪)’의 측면이며, ‘이즘’은 이 방향으로 치우치기 쉬운 관성(慣性)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비극 낳은 과격주의의 덜

아인슈타인 양심의 외침 ‘원칙은 인간을 위해 있다!’

사상의 상대성에 분동하지 않는 강인한 자신을

과격주의, 교조주의란 이러한 측면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 비대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살, 타살을 불문하고 죽음을 미화(美化)하고, 정당화하거나 인간의 생명 등을 실로 ‘깃털보다 가볍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세기였던 20세기가 공전의 살육 세기였던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가 강조하는 인간주의는 주의라는 단어는 붙지만, ‘이즘’의 관성과 대부분 대척적(對蹠的: 서로 정반대)입니다. 인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즘’처럼 규범, 그것도 외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내발적인 발동, 주체적인 판단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점입니다.

확실히 인간 또는 인간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바로 일정한 판단기준이나 행동 규범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문화 인류학자였던 故 이시다 에이이치로 씨는 일찍이 인간성의 보편적 기준을 물었을 때, 문화 상대주의의 견지에서는 이것을 ‘보편적’ 기준선으로 긋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자신이 이것을 인간적이라고 느낀다”고 최후에는 그렇게 됩니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언뜻 보아 애매모호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발성이나 주체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이든 된다’는 무원칙,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엄격한 딜레마에 직면하면 할수록 ‘이것을 인간적이라고 느낀다’는 자유로운 주체적 결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 ‘혼의 신음’

한 예를 들면 유대인으로서 나치스의 인정사정 없는 탄압과 폭력의 위협에 처했던 희대의 평화주의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어떻게 하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치스와 대결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은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 원칙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간디를 더없이 존경해 “명령으로 사람을 싸야 한다면 이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쪽이 낫다”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의 신조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원칙의 수정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유의한 점은 첫째 아인슈타인이 나치스처럼 문답무용의 폭력 앞에서 저항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적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어쩔 수 없는 결단에 직면한 것, 둘째 나치스가 먼저 보유하게 될 공포를 전제로 한 원폭제조(사용이 아닌) 시인이 뜻밖에도 일본에 핵 투하를 초래한 것에 대한 후회, ‘일생일대의 중대한 실수’라는 죄의식 그리고, 셋째 죄의식을 근원으로 한 전후 핵폐기와 세계정부 수립에 대한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자세, 평화운동 추진입니다.

그러한 혼의 편력을 근거로 한 부분이야말로 그때마다 ‘이것을 인간적이라고 느낀다’는 보편적인 심정의 부득이한 발로(發露)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선(善)한 것을 추구한 내적 갈등, 정신투쟁이야말로 인간주의가 인간주의다운 증거입니다.

나치즘 와중에 있던 아인슈타인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고 자주 말했는데, 그것에는 그러한 갈등, 정신투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후 아인슈타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폭력’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거대한 혼의 투쟁은 간디(‘이즘’적인 간디주의가 아니라)의 비폭력투쟁과 깊은 곳에서 회로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년의 아인슈타인이 인도의 성인(聖人)에게 “이 시대 최고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천재 간디”라는 찬사를 보낸 것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칙은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 원칙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의미 깊은 말을 간단명료하게 말하면, 솔직한 인간주의의 ‘황금률(黃金律: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기독교의 기본적 윤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세기 거인의 고투를 기다릴 것도 없이 매우 자명한, “말하기는 쉽고 행동하기는 어렵다”라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 정치 이데올로기를 불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망각하고, 인간을 원리·원칙에 종속시켜 결국에는 희생을 강요했는지, 생각할수록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도착(倒錯)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격주의, 교조주의에 치우치기 쉬운 성향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성 본연에 기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불전(佛典)에는 “얕은 가르침은 믿기 쉽고 이해하기 쉽지만 깊은 가르침은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석존이 설한 것이다. 얕은 것을 버리고 깊은 것을 따르는 것이 장부(丈夫)의 마음이다”라고 있습니다만, 인간은 자칫하면 이 ‘장부의 마음’에 등 돌리고 하나의 도그마(독단 또는 교의, 교리, 신조)에 의지해 그 포로가 되고 맙니다. 도그마의 경신(輕信)이나 맹신(盲信) 즉 ‘얕음’에 따르려 하고 ‘쉬움’에 따르려는 본연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격주의의 덫’이 놓여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지닌 이 약함, 어리석음을 이용해 또는 아첨, 술수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증오, 분노, 질투, 교만함이라는 삼악도(三惡道), 사악취(四惡趣)로 유혹하려 합니다. 이러한 인간정신의 열등화, 약화, 우화(愚化)를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과격주의, 교조주의를 반인간주의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십여 년간 이어온 사악한 종교적 권위와 투쟁한 ‘헤이세이(平成) 종교개혁’ 운동도 그러한 반인간주의에 대한 인간주의의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의 권위를 방패로 삼아 자신의 부패, 타락을 외면하며 그 권위, 권력 아래 신도의 존귀한 혼의 압살을 도모하는 등, 최악의 반인간주의입니다.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굴복하는 것은 인간성의 패배며 일종일파(一宗一派)의 문제를 초월해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인 심정 - ‘이것을 인간적이라고 느낀다’는 심정으로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헤이세이 종교개혁’에 대해 故 호리 타로(사가문화단기대학 학장) 선생은 “이번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권위주의’와 ‘의지하는 신앙’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을 이겨 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십수 성상(星霜), 우리는 타락한 종교적 권위와 투쟁하면서 개인도 단체도 훌륭히 탈피하고 성장해 ‘장부의 마음’을 단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부심은 우리의 투쟁과 인간주의 구축이라는 문명론적 과제가 근본적으로 통한다는 자각과 자신감에서 유래합니다.

불법에 바탕 둔 인간주의 구조

그런데 3년 전 제언에서 저는 불교에 바탕을 둔 인간주의의 구조를 대략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대강의 틀을 기본으로 조금 더 깊이 고찰하고자 합니다. 인간주의의 구조는 다음 3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상(事象)은 상대적이고 가변적(可變的)이다.

둘째, 그러므로 사상의 상대성과 가변성을 간파하는 안식(眼識)을 기르고, 사상의 상대성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주체를 구축하는 일이 불가결하다.

셋째, 인간주의는 그러한 안식과 주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 인종, 민족으로 인간을 ‘정형화(定型化)’하거나 ‘한정성(限定性)’을 부여하는 등 대화의 길을 막지 않는다.

3항목 중 첫째와 둘째 항목, 즉 사상의 상대성과 가변성을 간파하는 안식의 중요성이 불교철학의 중요한 측면인 삼법인(三法印) 즉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행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화에 이은 변화의 연속이며 ‘불변(不變)’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아(我)’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제법무아입니다.

대승불교 보살도의 진수는 역연도 순연으로 전환되는 속에

그렇게 간파하는 안식(眼識)에 의해 득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가 ‘열반적정’이며, 그것은 석존 원초의 깨달음인 ‘연기(緣起)’의 세계, 즉 모든 사물이 서로 연이 되고 의존하면서 일으키는 다양성이 엮는 풍요로운 세계와 겹쳐집니다.

문제는, 통상 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 특징적인 것입니다만, 제가 인간주의의 귀결(歸結)로 제기한 세 번째 항목에서 짚게 띠는 대화나 실천의 능동적 이미지와 ‘삼법인’이나 ‘연기’의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언어도단(言語道斷)·심행소멸(心行所滅). “침묵과 말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알베르 자카르 ‘세계를 알기 위한 작은 철학’)에서는 확실히 ‘말’보다 ‘침묵’에 압도적으로 무게를 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침묵을 공허가 아닌 풍요라고 포착하는 것은 불교의 중요한 측면이며, 언어(로고스) 중심주의로 돌진한 서양문명이 현재 도처에서 파탄하여, 지친 사람들의 마음이 불교적인 것에서 안식처

를 구하는 현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하는 것이 인간 최대의 속성으로 계속 되는 한, 인간주의(인간중심주의가 아닌)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고 침묵을 지키는 일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든 싫든 인간 속으로, 대화의 바다 속으로 몸을 던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생활에서 반드시 마주치게 될 악과 불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보살도 병들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 또한 낫는다”라는 유마힐¹의 맹세처럼 대승불교의 보살도(菩薩道)는 그야말로 이 과제에 대한 도전이고 특히 법화경에서 니치렌불법(日蓮佛法)에 이르는 계보에서는,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정적(靜寂)에 입각해 (부정이나 결별이 아닌) 보살도에 수반된 대화와 실천의 다이내미즘(Dynamism)으로 벡터(힘의 방향성) 변용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이내미즘을 불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진 강연(1993년 9월, ‘21세기 문명과 대승불교’)에서 불전(佛典)에 그려진 “기쁨으로써 사람을 접하며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밝은 안색으로 스스로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라는 석존상을 강하게 권장했습니다.

그 약동하는 다이내미즘은 필시 아인슈타인이 즐겨 말하던 ‘우주적 종교감각’ (‘아인슈타인, 신을 말한다’)과 깊이 공명한다고 추찰됩니다.

이상의 점에 입각해 여기에서 ‘인간주의의 행동준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상호의존(연기<緣起>)하며 조화와 전일성(全一性)은 물론이고 모순과 대립이라도 하나의 결부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모순과 대립의 내적 제패에서 비롯되는 악과 투쟁은 거대한 결합에 이르기까지 피할 수 없으며 피해서는 안 되는 형극(시련: 사태가 분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타파한 ‘장벽’

¹ 유마힐

석존 재세 시대 중(中) 인도 비야리성(毘耶離城)에 살았다는 재가신도의 대표적 인물. 대승불교의 교리에 정통하고 능변가로서 능란하게 방편을 사용해 불교유포에 공헌했다고 한다. <유마경>은 유마힐의 문명을 간 문수사리보살이 유마힐과 대화를 나누는 등, 극적인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조화와 전일성을 ‘순연(順緣)’이라고 한다면 모순과 대립은 ‘역연(逆緣)’²입니다. 양자는 연(緣)의 표리를 이룬 동등한 가치, 아니 그보다도 인생은 투쟁이며 그것으로 인간을 단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역연일수록 용감하게 맞서는 것을 보살의 훈장으로 여깁니다.

‘정형화(定型化)’와 ‘한정성(限定性)’으로 사람을 선별하는 일 없이, 설령 역연으로 보여도 순역불이(順逆不二)라는 생명의 회전축을 완전히 가동해 끈질긴 대화로 순연으로 전환하는 곳에 불교를 골격으로 한 인간주의의 면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신념으로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일찍이 중일 관계가 냉엄한 시대에 국교 정상화 제언을 하고 또 중소의 긴장완화를 위해 행동한 이유도 ‘아무리 심각한 대립이라도 영원히 계속될 리 없고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한 반드시 희망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 6월, 미국과 쿠바관계가 민간 항공기 격추와 경제제재 등으로 험악하게 변하는 속에서 미국과 쿠바를 잇따라 방문해 카스트로 의장과 직접 대담한 것도, 양국이 적대 관계일지라도 결코 고정적이고 영속적이지 않다는 인간주의 신조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던 냉전이 종결되고 그 상징적인 존재였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은 ‘사상(事象)의 상대성과 가변성’을 나타내는 최고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44년 전인 1961년 10월, 저는 서독(당시)을 방문하고 서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門) 앞에서 동행한 벗에게 “30년 후에는 틀림없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일이 그리게 떠오릅니다. 기이하게도 ‘장벽’이 무너진 것은 그로부터 28년 후였습니다.

두 번의 만남으로 돈독한 우정을 맺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만델라 前 대통령은 움직이기 힘든 현실의 장벽을 타파하는 힘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 정책을 극복한 자신의 실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그들의 예상을 공공연하게 물리쳤다.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망하며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결단이 낳은 성과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라고.

² 순연(順緣)과 역연(逆緣)

순연이란 가르침을 듣고 순수하게 믿고 불도(佛道)에 들어가는 것이고, 역연은 방법(謗法) 등 불법(佛法)에 적대하는 악사(惡事)가 오히려 불도의 연(緣)이 되는 것이다. 불법에서는 ‘독고(毒鼓)의 연’이라고 하고, 역연이라도 결국 번뇌를 끊고 득도할 수 있으며 그 연을 플러스로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고 설한다.

그야말로 깊은 함축성을 지닌 말입니다.

당사자 외에는 ‘기적’이라고밖에 비치지 않는 시대변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은, 사상의 상대성과 가변성을 간파하는 ‘안식’이며 명확한 전망을 갖고 한걸음 앞으로 내딛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유엔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증오와 대립을 근절하는 도전을

이슬람 사회의 실상을 아는 노력을

지금 가장 초점이 되는 이라크 정세만 해도 가장 우려되는 일은 그것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즘과 이즘의 대립이라는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모든 사람이 과격주의적 사고나 자국의 문화와 법 제도를 타국에게 강압하려는 패권적 사고를 품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소수파에 해당합니다.

저는 5년 전, 이란 출신의 평화학자인 테헤라니안 박사(하와이대학교 교수)와 함께 불교와 이슬람교에 관한 대화를 수록한 대담집을 발간했습니다.

박사와 나는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가 이슬람교를 폭력이나 위협에 결부시키는 편견과 오해의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지하드(성전)’라는 단어의 본뜻도 어디까지나 더욱 높은 정신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면적 격투에 있음을 박사는 강조하셨습니다.

또 일찍이 오스만 제국에서 펼친 타종교에 대한 유화 정책이나 이슬람권 치세 하에 놓인 코르도바와 사라예보 등 유럽 도시에서 여러 종교와 공존을 도모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슬람 문명의 골격에는 타인에 대한 불관용 등과 전혀 정반대인 ‘보편성에 대한 시선’이나 ‘다양성 존중’이라는 미질(美質: 아름다운 성질, 본바탕)이 맥동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치했습니다.

저는 2월부터 터키 출신 문화인류학자인 야먼 박사(하버드대학교 교수)와 연재대담을 시작합니다.

이 대담에서도 이슬람 사회의 실상과 정신성에 빛을 비추며 인류가 공존하는 지구문명의 길을 열기 위한 방도를 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SGI도 4년 전에 일어난 미국대폭발테러사건(9·11 동시다발 테러사건) 직후부터 ‘유럽과학예술아카데미’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대표가 모인 ‘4대 종교간 대화’에 참가하는 등 더불어 평화에 공헌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창립한 평화연구기관 ‘보스톤 21세기센터’와 ‘동양철학연구소’에서도 지구적 문제군 해결의 시좌(視座: 개인이 자기 입장에서 사회를 보는 시점)를 찾아내기 위해 문명간 또는 종교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어쨌든 대립이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명 그 자체와 폭력 지향의 움직임을 분리해 ‘정형

화'와 '한정성'이라는 '과격주의의 뒷'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라 도굴꾼이 결국 미라가 되고 맙니다.(역주: 상대를 설득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다)

배타적인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이 점에 대해, 지구 규모로 확대되는 문화적 대립을 주제로 한 유엔개발계획의 '2004 유엔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시사성 깊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폭력적 수단도 서슴지 않는 그룹은 종교에 한하지 않고 민족이나 인종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으며, 그 특징으로 '현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감을 부추기는 슬로건으로 표면적인 불만을 이용하는 데 힘을 쏟는다'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조차 대상으로 하며, 다른 의견을 비방하고 억압해 집단을 위한 성실성이나 충성심(신앙의 순수함이나 애국심)을 문제로 삼는다'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을 과격한 행동으로 몰아넣는 것은 결코 단순히 특정 종교나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러한 그룹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실태를 올바르게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동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이슬람권 여러 나라의 지도자나 많은 석학들과 대화를 거듭한 가운데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적대가 아니라 평화적 공존을 바라는 온건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현재적(顯在的), 잠재적(潛在的)인 다수파며 테러나 분쟁을 일으키는 그룹 쪽이 예외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군사에 치우친 방식으로 폭력지향 그룹에 대처해 시민 사이에서도 그 그룹을 지지하고 공감하고 마는 역효과적 수법이 아니라, 그룹의 활동 바탕이 되는 사회적 불안이나 불만을 끈기 있게 제거하면서 그 존립 기반을 근절하는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평화의 문화'로 세계시민을 육성

열쇠는 역시 제가 지금까지 일관지(一以貫之) 강조한 교육, 특히 청소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일본의 군국주의 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양날의 검'(역주: 사용법 여하에 따라 유용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르게 활용하면 인간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은 '전쟁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고, '언어적 인간'(호모 로스)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되묻고 발휘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장’이어야 합니다.

이달부터 시작한 유엔의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은 그것을 위한 국제적인 대처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구조로 인권교육을 지속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4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유엔의 ‘반인종차별 세계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가 호소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계프로그램은 SGI도 다른 비정부기구(NGO)나 유엔기구, 각국 정부와 협력을 거듭해 그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고를 거쳐 지난달 유엔총회의 결의로 제정한 것입니다.

제1단계인 2007년까지 처음 3년간은 초등·중등교육의 장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에 특히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SGI도 지금까지 유엔 ‘인권교육 10년’을 지원한 ‘현대세계의 인권’전에 이어 새로운 인권 전시를 제작해 각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NGO 등과 함께 그 제정을 호소해 실현한 것입니다.

교육 10년을 추진하는 데 중심이 되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그 기본적인 전망을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의 적극적인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관이나 행동, 삶의 자세를 학습하는 기회’로 하듯이, 대상이 되는 내용은 환경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실로 폭이 넓습니다.

말하자면 평화나 빈곤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모든 과제를 시야에 넣으면서 미래 세대로 계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다 함께 힘을 모아 건설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교육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유엔을 주축으로 2개의 교육추진을 위한 대처를 ‘21세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회’로 포착하고 국제사회가 일치 협력해 성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너’의 근원적 만남

그런데 현대라는 상황 하에서 인간주의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인간사회의 일만 생각해서 충족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대화의 철학자’ 부버의 언설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요 저서인 《나와 너》는 80여년 전에 쓴 책이지만 고전에 걸맞게 지금 또한 불멸의 광채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근대적 세계관의 주축이던 개(個)와 객체라는 주관·객관 관계를 ‘나-그것’으로 하고, 그

표층을 꿰뚫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전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나-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참된 삶이란 만남이다’라고 근대적 문명을 모두 뒤덮으려는 ‘나-그것’의 의제(擬制)를 벗겨 내고 ‘너’의 실상을 계속 예의 탐구했습니다.

“나-네가 있기에 존재하는 나, 내가 있기에 존재하는 너”, 이러한 사고 형태가 종파의 차이를 초월해 불교의 연기관과 지극히 가깝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는 차분히 호소합니다. “관계의 세계를 만드는 영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교차하는 생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어둠 속에서 날갯짓하며 언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은 우리를 향해 움직이지만 우리 곁으로 올 수 없으며 그들을 향해 우리가 ‘너’라고 소리쳐 불러도 언어의 입구에서 멈춰 서고 맙니다.

둘째는 인간과 인간이 교차하는 생활. 여기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명백하여 언어의 형체를 취합니다. 우리는 ‘너’를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신적 존재와 뒤섞이는 생활. 이곳의 관계는 구름에 뒤덮여 보이지 않지만 섬광처럼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없지만 언어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너’를 지각하지 못하지만 부르는 것을 느끼고 형체를 만들고 사유하고 행위하면서 이것에 대답합니다.”

근대문명의 위기를 타파하는 ‘환경으로서의 인간’의 시좌(視座)

‘언어적 인간’의 숙명에 성실하게 산다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 부버는 인간의 ‘언어적 인간’이라는 숙명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대화에 불가결한 수단인 언어를 평가하고 다루는 데 과부족이 없습니다. 과격주의와 교조주의의 원인이 되는 언어에 대한 과신(過信)은, 물론 훗날 구조주의 계열에 속하는 많은 사람처럼 언어에 대한 불신(不信)을 격하게 나타내는 일도 없습니다. 언어의 기능은 인간세계 특유의 현상이면서 그것을 매개로 자연계도, 성스러운 세계도 ‘나-너’의 관계를 엮어내는 ‘언어적 인간’ 본래의 모습을 주의 깊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 절친한 벗 중에 세계적 문호 칭기스 아이트마토프 씨가 계십니다. 여러 차례 만나 대담집(《위대한 혼의 시〈詩〉》)도 출판했습니다. 아이트마토프 씨가 10여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느 강연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대담집을 읽고 감명을 받은 독일의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박물관’을 만들어 인류문명의 모든 성과를 마이크로 필름에 담고 대담집도 수록하고 싶으니 두세

줄 정도의 말을 부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트마토프 씨는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돌 속에조차 감춰진 생명이 숨쉬고 있다. 우리 인간만이 우주 삼라만상에 사색과 언어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언어적 인간’의 숙명(宿命)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둘째, 부버가 유대교인으로서 같은 신의 피조물이라도 인간과 자연 사이에 명확한 하나의 선을 그어 서열을 매기는 헤브라이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면서 인간계도 자연계도 하나의 것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나-너’라는 만남과 대화적 원리는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괴테의 풍요로운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울렸던가. 그것은 자연과 순수하게 어우러진 ‘나’”라고 범신론자(汎神論者: 신과 우주를 똑같은 것으로 보는 종교관을 가진 사람) 괴테를 찬탄한 그는 새, 식물, 암석에게도 친근하게 말을 붙인 13세기 성자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1980년, ‘생태학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의 의발(衣鉢)을 계승한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현대문명의 위기를 생각하면 인간이 인간계 외에 자연환경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손에 들고 스냅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연과 대화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부버의 시대와 비교하면 몇 배나 지구환경이 악화돼 생태학적 위기상황에 처한 오늘날, 이러한 대화 요청도 또한 몇 배나 됐으며 평화라는 관점에서도 엄중하게 두루 살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는 인권의 세기’라는 슬로건을 보더라도 인권을 근대 휴머니즘의 계통으로만 파악해서는 단순한 구호로 끝나고 맙니다.

개인의 자유나 존엄이라는 근대 휴머니즘의 원리는 ‘환경으로서 인간’ ‘자연으로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하지 않으면 공동화(空洞化)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인권의 내실화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로더릭 F. 내쉬 씨의 ‘자연의 권리’가 상세하게 그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듯 권리는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라 ‘동물의 해방’(피터 싱어), ‘생명에 대한 경외’(알베르트 슈바이처), ‘딥 에콜로지’(아르네 네쓰), ‘토지윤리’(알도 레오폴드) 등 동식물이나 무생물까지 생존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세기(前世紀) 후반부터 급속하게 높아졌습니다.

심각해지는 생태계 시스템의 기능 부전

지구환경 문제가 촉구하는 인류사적 전환

이러한 흐름은 이른바 시대의 요청으로, 제가 예전부터 헌법에 ‘환경권’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도 그 요청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제의 중요성에 비해 이 인류사적 지상명제에 대한 대응이 짙어진 짐의 거대함 때문인지 실로 지지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안입니다.

1992년에 브라질에서 개최한 ‘지구서밋’ 직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이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러시아의 비준을 거쳐 마침내 2월에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를 발효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교토의정서’는 당사국 전체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한 것인데, 미국의 이탈과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의정서의 대상 외 당사국에 대한 2013년 이후의 윤곽을 잡아야 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실시교섭을 병행하는 형태로 각국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는 등, 1990년대부터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억제를 목적으로 한 환경세 도입이나 석유자원을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증가하려는 노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난화를 멈추려면, 세계 전체 배출량의 반 이하로 억제해야 하며, 그 험난한 길의 원대함을 생각하면 ‘글로벌(세계적)하게 생각하고 로컬(지역적)하게 행동한다’는 철칙이 참으로 수궁이 갑니다.

올해 영국에서 개최할 G8서밋에서는 온난화 문제를 주요 테마로 채택했는데, 영국의 초대를 받은 중국과 인도의 참가를 실현하는 한편 미국의 번의(翻意)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교토의정서를 잇는 윤곽을 확정하기 위한 한걸음 전진을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지구환경 문제는 단기·중기적인 과제로서 국제정치나 국제경제 등 국제적인 의론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인류 생존의 기반자체를 위협하는 인간의 삶이나 현대문명 모습 그 자체를 재조명하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할 인류사적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NHK에서 ‘지구대이변’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3회 시리즈로, ‘온난화가 초래하는 것’ ‘물이 위험하다’ ‘파괴되는 생태계’)

카리브해 지역에서 천식이 유행하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부는 모래 바람, 하와이 지각변동과 남아메리카 식물 등, 언뜻 보면 관계 없는 듯한 현상이 실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지구 생태계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비효과’(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작은 변화가 증폭돼 폭풍우가 된다는 이론)에 대해 모스크바대학교 사도브니치 총장과 대담할 때, 자원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산드라의 딜레마를 넘어

개개인의 위험을 나타낸 시그널(신호)에 주목한다고 해도 그 무한한 연쇄반응 속에서 예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구환경 문제의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켜 봐도 유럽의 이상고온 현상,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대홍수, 북아메리카를 덮친 대형 허리케인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지구온난화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지구환경의 위기를 알리는 다양한 징후가 발생해도 다가오는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트마토프 씨는 《카산드라의 낙인》에서 능숙한 비유로 그러한 인간의 심리상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만에 놓인 커다란 다리 구조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는데, 아직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통행이 가능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운반해야 할 화물은 운반하면 되고 다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산드라’³의 이름을 빌려 아이트마토프 씨가 현대 문명의 어두운 부분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이 교토의정서 발효로 실질적인 가동에 이르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요한 것에서 상징하듯이, 국제적인 대응이 지지부진했던 것에 비해 환경파괴의 속도는 급속히 진행 중이며 이대로라면 그 간격은 더욱더 확대될 뿐입니다.

대참사를 부르기 전에 카산드라의 예언(지구환경이 변동하는 다양한 시그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방지하는 문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국제사회 수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각각의 발본적인 방침 전환이 급선무이며 불가결합니다.

카산드라라면 아이트마토프 씨와 동일한 테마로, 이 그리스 신화 여성을 모방한 《카산드라의 딜레마》라는 책을 어느 지인에게 소개받았습니다.

³ 카산드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왕녀. 아폴론의 총애를 받았으며 아폴론은 그녀가 자기의 요구에 따르기만 한다면 예언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카산드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예언 능력을 받았지만 아폴론의 요구는 거절했다. 그러자 아폴론은 그녀의 예언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게 만듦으로써 복수했다. 트로이가 함락된 후에 카산드라는 살해됐다.

부제가 ‘지구의 위기’ ‘희망의 노래’로, 이 책의 내용은 밝은 어조로 일관돼 있습니다.

지구환경 문제를 정확히 살피면서 종말론적인 폐시미즘(비관주의)이나 앨빈 토플러가 ‘환경신권정치’라고 비판한 교조주의적인 사고를 멀리하며, 현실에 근거하면서 점진적으로 “카산드라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환경문제란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 서로 관계하는 ‘세계’라는 시스템과 ‘자연계’라는 시스템 사이에서 발생하는 알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황신호, 적신호가 적확하게 수신되지 않는 즉 커뮤니케이션 부전(不全)에 문제가 있으며, 그 부전의 책임은 언제나 의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계’와 인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점은 이를테면 상식적입니다만, 제 인상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저자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피드백 용어를 원용(援用)하며 ‘피드백 루프’라고 명명하고, 이 루프(고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일(커뮤니케이션 부전)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확실히 행동파다운 유연한 대응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루프’는 그야말로 자연과 ‘대화’입니다. 자연과 ‘만남’에 의한 ‘나-너’라는 관계의 출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연은 ‘언어의 입구에서 멈춘’ 상태이므로 ‘대화’와 ‘만남’은 모두 인간이 의식적으로 끈기를 갖고 끊임없이 관여해야만 ‘나-너’라는 관계는 성립합니다. 부버는 “관계란 언어의 총총대에 매달려 있다”라고 정묘(精妙)하게 표현했습니다.

환경보전 운동론에 ‘나-너’라는 정신성 종교적 색채를 띤 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이하게 느껴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하게 행동한다’는 슬로건이 나타내듯 지극히 구체적이면서 문명사적 너비의 전망을 요하는 과제와 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며, 그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정신성의 뒷받침과 정신성에 의한 촉구는 대단히 큰 힘이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유정(有情: 인간과 동물), 비정(非情: 초목, 산하, 대지 등)에 걸쳐 편재된 생명을 밝히고 ‘풀도 나무도 성불이 가능하다’는 초목성불을 설한 불교 철리도 그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은 따로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연계’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겸허한 자세와 태도를 망각하고 거만하게도 인간 ‘세계’의 편의만을 무턱대고 밀어붙이려 하면 피드백 루프는 기능부전에 빠지고 ‘자연계’ 시스템은 무제한으로 파괴돼 ‘나-그것’의 관계라는 일방적이고도 일원적인 지배를 부르고 맙니다.

‘대화 철학자’의 투철한 시선은 그러한 ‘허울 좋은’ 현대 문명의 저 깊은 바닥마저 꿰뚫어 본 듯합니다.

《인생지리학》의 탁월한 시좌

그렇다고 해도 제가 감탄해 마지않는 것은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창가학회 초대 회장의 선견성 넘치는 탁견(卓見)입니다.

마키구치 회장이 약관 32세에 세상에 내놓은 주요 저서인 《인생지리학》에서 인간과 환경의 정신적인 교섭(交涉)으로, ‘지각적(知覺的) 교섭’ ‘이용적(利用的) 교섭’ ‘과학적 교섭’ ‘심미적(審美的) 교섭’ ‘도덕적 교섭’ ‘동정적(同情的) 교섭’ ‘공공적(公共的) 교섭’ ‘종교적 교섭’ 8개 항목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처음 다섯 가지는 환경을 자신과 전혀 다른 객체이자 단순한 경험의 재료로 삼아 지식을 넓히는 것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환경을 자신과 똑같이 세계의 일부를 이루고 생존하는 것으로 포착해 그 교제 속에서 심정(인격)을 함양한다고 구별하고, 특히 후자의 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간과 외계(外界)의 교섭은 먼저 인간의 주관적 성질에 귀착한다. 사람은 이처럼 외계와 제반교섭으로 원만한 발달을 이룬다. 정말로 그렇다면 외계 특히 천연(天然)은 진정 자신의 계발자, 지도자, 위자자(慰藉者: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라 할 수 있고, 자신이 천연과 제반 교류를 맺는 것은 이 성쇠(盛衰)와 부침(浮沈)이 극심한 인생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임무고, 인생의 행복은 이것의 폭과 친함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부의 이동(異同)은 일단 제쳐두고 대략 말하자면 마키구치 회장이 ‘경험’에 속한다고 한 앞의 다섯 가지는 부버가 말한 ‘나-그것’이라는 관계에 해당하며 나머지 세 가지가 ‘나-너’라는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계 특히 천연은 진정 자신의 계발자, 지도자, 위자자”라는 말은, 이 얼마나 대담한 의인화일까요. 자신에 넘친 ‘나-너’라는 관계 표출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는 정신풍토에서 부버가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자연에 호소하는 것에 비해, 애니미즘이 정신풍토를 이루는 일본에서 산 마키구치 회장은 대담하고 주저 없이 자연(천연)과의 ‘교제’에 뛰어 들고 부버처럼 구애받거나 주저하지 않고 ‘반려’로 삼습니다.

신중함과 대담함의 시비를 가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연과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호소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천연과 제반의 교류를 맺는 것은, 이 성쇠(盛衰)와 부침(浮沈)이 극심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소중한 ‘반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자신의 몸을 손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뜨고 볼 수 없는 현대 지구환경의 황폐를 마키구치 회장은 상상도 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본디 인간은 ‘환경으로서 인간’이라는 존재양식 외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는 도전을

‘허울 좋은’ 문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작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만 해도 지구 문명의 지평과 대체로 인연이 없는 경제면만의 비대화고, 글로벌 캐피털리즘(세계자본주의)은 바야흐로 ‘부(富)의 신(神)·매먼’이 주관하는 글로벌 매머니즘(세계배금주의)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드시 과장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그것’ 관계의 무참한 귀착점이라 해도 좋습니다.

확실히 화폐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 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폐는 인간끼리 맺은 약속상에서 성립하는 ‘세계’라는 시스템 안에서만 기능한 것일 뿐, ‘자연계’ 시스템 하에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은 극단적인 이론입니다만, 적어도 본래 그러한 성격을 지니는 것, 즉 ‘자연계’ 시스템과 가장 관계가 멀다는 점은 정확히 파악해 두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그 점을 착각해 매먼의 유혹에 꼭 잡혀 두 시스템의 호환성(서로 의존하며 단독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는 철칙을 벗어나면 ‘자본의 윤리’가 방약무인으로 횡행해 ‘세계’와 ‘자연계’의 알력은 증대 일로로 치달아 결국엔 ‘자연계’에게 강렬하고 즉각적인 보복을 당하는 처지가 되는 것은 필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은 단호한 ‘결의와 행동’ 그리고 앞서 언급한 ‘지속성’입니다. 특히 ‘지속성’은 ‘서스테이너블’(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이 단순한 환경보호와 다른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서 자리매김하는 시류(時流)에 비춰봐도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3년 전 ‘환경개발 서밋’을 기해 발표한 환경제언 중에서 ①현상(現狀)을 알고 배울 것 ②삶을 직시할 것 ③행동으로 옮길 것, 이 세 가지 단계를 밟고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 대처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GI도 그 일환으로 지구현장위원회와 공동제작한 ‘변혁의 종자 - 지구현장과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전시회를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개최했고, 올해부터는 일본에서 ‘지구현장 - 새로운 지구윤리를 추구하여’전(가칭)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인간주의’ 조류를 국제적인 법제도 측면에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60주년을 맞는 해며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에서 60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저는 특히 다음 세 가지 관점, ①유엔 개혁과 그 강화 ②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 조성 and 평화 구축 ③핵군축과 분쟁 방지를 위한 대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엔 개혁과 그 강화’입니다.

지난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설치한 두 그룹에서 유엔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

니다.

타이 아난 前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하이레벨 자문위원회’와 브라질 카르도수 前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유엔과 시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유식자 패널’이 제출한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이레벨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와 ‘평화구축위원회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안과 함께 ‘포괄적 테러 조약의 조기 체결’과 ‘국제형사재판소 활용’, ‘무력 행사에 관한 판단 기준의 엄격화’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환경 정비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분쟁 종결 후, 그 지역의 평화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해 제가 발표한 제언에서도 강조한 바 있으며 그 실현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최대 초점이 된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개혁에 대한 제안도 지역간 균형과 유엔에 대한 공헌도 등을 가미해 이사국의 틀을 확대하여, 폭넓은 책임 공유와 함께 더욱 글로벌한 관점에 선 합의체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목표로 해야 할 결승점으로서, ‘위협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세계의 창조’라는 예방적인 역할과 ‘그래도 발생하는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더욱 큰 능력 구축’이라는 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안보리 확대’와 ‘평화구축위원회’ 신설안 등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에 비춰 보면 후자의 사후적인 대처에 관한 개혁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NGO와 관계를 강화하여 인류가 함께 투쟁하는 결집축으로

지구적 문제군에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21세기형 유엔을 지향하는 기구 개혁을!

거버넌스 조정위원회 창설을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목표인 ‘위협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세계의 창조’에 중점을 둔, 지구적 문제군에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21세기형 유엔’의 기구 개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화와 국제 협력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바로 유엔의 본질이며 그 소프트 파워가 가장 잘 발휘되는 분야가 ‘지구적 문제군에 대처하기 위한 규범 만들기’와 ‘예방을 위한 협력 체제 만들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사회이사회 기능 강화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적인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토의와 정책 권고를 통해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

진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빈곤 퇴치나 세계화 영향 등의 문제에도 주력하는 등, 유엔이 대처해야 할 우선적 행동 과제를 설정하는 열쇠를 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사회이사회가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21세기 유엔에 바라는 소프트 파워의 네 가지 역할(①국제 사회가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경고한다 ②국제 협력을 위한 규범과 목표를 설정한다 ③유엔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높인다 ④각 기관이 가진 정보와 경험을 집약해 공유하게 한다)을 확충하는 기구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빈곤이라는 지구적 문제군은 심각해진 후에야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후적인 접근에서 탈피해, 유엔이 '위협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세계 창조'를 향해 예방적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기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1997년, 기구 개혁의 일환으로 유엔의 모든 기관을 '평화와 안전 보장' '경제 사회 문제' '인도(人道) 문제' '개발 문제'라는 분야별로 그룹을 나누고 4개의 집행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각 집행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하는 '상급 관리 그룹'으로 이루어진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적 문제군의 상호관련성과 복합적인 성격에 비춰, 이러한 정보 공유와 활동 조정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형태인 '글로벌 거버넌스(통치, 지배, 통제) 조정위원회'를 창설해 경제사회이사회의 심의나 의사 결정과 연동해,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 역할을 유엔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 기능을 가진 NGO에 의한 '작업부회(作業部會)'를 발족하고 이를 통한 성과를 활용하면서 문제 의식과 위기감을 널리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구 개혁을 통해, 먼저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2015년까지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⁴를 달성하기 위해, 그 과제 극복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세계은행(IBRD) 조사에 따르면, 1달러(약 1천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이 1981년부터

⁴ 밀레니엄 개발 목표

2000년에 채택한 '유엔 밀레니엄 선언'과 1990년대에 개최한 여러 회의에서 채택한 개발 목표를 종합해 공통된 기구로 정리한 것.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감시킨다' '기아로 괴로워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감시킨다' '초등교육을 완전 보급한다'는 등의 항목이 언급돼 있다.

2001년까지 세계 총인구의 40%에서 21%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극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4억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가 말해 주듯 국제 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밀레니엄 선언’과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관한 유엔 총회 하이레벨협약이 9월로 예정됐습니다만, 지구상에서 ‘비참’이란 두 글자를 없애기 위한 대처가 크게 전진하길 절실하게 염원합니다.

총회와 안보리에 민중의 소리를 반영

이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지구 개혁과 함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과 시민 사회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카르도수 전 브라질 대통령의 ‘유엔과 시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유식자 패널’에서 제출한 ‘우리 인민 - 시민 사회, 유엔,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보고서에 시사하는 바가 깊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개혁의 방향성으로 “유엔 독자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협력을 소집하고 조정하는, 유엔을 ‘밖으로 향한’ 조직으로 한다” “문제에 관계된 다른 많은 행위 주체와 연대를 도모한다”라는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과 시민 사회, 특히 유엔과 NGO간의 파트너십 강화가 불가결한 전제일 것이 분명합니다.

유엔을 창설한 1945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산적한 지구적 문제군이라는 존재며 그 해결을 위해 많은 NGO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유엔 내부만의 개혁으로 끝난다면 가장 중요한 화룡점정(畫龍點睛: 최후의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일을 달성한다)을 빠뜨린 것으로, 결실 있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인정하는 NGO의 협의 자격 같은 참가 형태를 유엔의 다른 기관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확대해 민중의 소리를 반영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총회에서 NGO는 회의 방청과 문서 입수는 인정됐지만 옵서버(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는 방청자)로서 의견 표명은 할 수 없던 차에, 1990년대에 연이어 개최한 유엔 특별 총회에서 NGO대표가 각국의 정부 대표와 함께 연설하고, 각료급 정부간 협회에 참가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안보리에서도 1993년 이래, 의장국(議長國)과 NGO의 30여 단체가 비공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아리아 방식’이라 불리는 관행이 이어져, 쌍방이 관심 있는 테마에 대해 대화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근거해, 경제사회이사회가 인정하는 토의에 옵서버로 참가하거나 가(假)제안을 제출하는 것 등, 총회나 안보리에서도 보장하는 제도를 다시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前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이 지구에 함께 사는 여러분. 이 각국의 집회장을 우리의 기반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세계를 올바르게 영속적인 평화를 향해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 보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창설 60주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민은”으로 시작하는 유엔헌장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 지구의 이익과 인류의 이익에 입각한, 유엔을 강화하는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일 없이, 전 세계 정상이 영지와 신념을 갖고 유엔 개혁에 노력할 것을 강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신설하여 ‘인간의 안전 보장’의 모델 구축

오키나와나 제주도를 본부 후보지로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뢰 조성’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엔의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유엔에는 뉴욕의 유엔본부 외에 제네바와 비엔나에 사무국이, 나이로비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들 세 도시에는 사무국과 사무소에 추가해 유엔 제기관의 본부가 있으며, 제네바는 주로 인권·군축, 비엔나는 범죄 방지와 국제 무역, 나이로비는 환경과 주거 문제라는 각 분야의 유엔활동중심거점으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저는 아시아·태평양 본부의 신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간의 안전 보장’에 관한 활동에 충실을 기하면서, 유엔이 목표로 하는 ‘위협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세계 창조’에 대한 모델 지역 건설에 도전을 개시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또 그 설치 장소로, 현재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본부가 있는 타이의 방콕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한국의 제주도 등을 추천합니다.

‘전쟁과 폭력의 20세기’에 필설로는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시대의 전환을 강하게 희구하는 이러한 ‘평화의 섬’을 아시아·태평양 본부의 후보지로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전 제언(1994년)에서도 아시아에 이러한 지역 거점을 설치할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태평양 지역도 포함한 안을 제창한 것은, 태평양 지역에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유엔 활동에 적극적인 나라들이 있으며 게다가 유엔 활동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모인 아시아 지역을 서로 연결해 얻을 수 있는 상승효과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장소에 있는 일본에는 유엔의 싱크탱크(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조직) 기능을 담당하는 유엔대학교 본부가 있으며 최근에는 ‘평화와 거버넌스’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집약한 연구와 연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이 유엔대학을 비롯한 지역내의 여러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 중핵이 되어, 특히 ‘인간의 안전보장’에 관한 활동에 주력하는 속에 모두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글로벌거버넌스(지구 사회 운영)’를 유엔 중심으로 확립했으면 합니다.

또 경제사회이사회가 뉴욕과 제네바에서 서로 번갈아 개최하는 주요 회기를 ‘유엔 아시아·태평양 본부’에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안전보장’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제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가 다년간 중요 프로젝트로 연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도다평화연구소에서는 내년 2월에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유엔 강화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테마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본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다른 연구 기관과 협력해 한층 추진하고 싶습니다.

‘국제부흥지원기구’를 축으로 재해대책의 강화를

환경과 개발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깊게

‘평화의 공동체’를 동아시아에!

서밋 개최에 따른 지역간 대화

두 번째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지역 통합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에 동아시아 나라들을 덮친 ‘통화 위기’ 이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ASEAN 가맹국에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를 더한 ‘ASEAN+3’라는 지역간 대화의 틀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해 11월에 열린 ASEAN 정상회의에서 첫 ‘동아시아 서밋’을 올 가을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장래의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전망하는 토의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기회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 촉진을 주장했던 바, 이번의 합의를 환영하며

서밋 등에서 토론을 거듭해 세계 평화와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열린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길 절실히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이 흐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환경 문제’ ‘인간 개발’ ‘재해 대책’이라는 세 분야에서 지역 협력에 힘을 쏟으며, 공동체 형성을 향한 신뢰 조성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나 ‘아시아 삼림(森林) 파트너십’이라는 조직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협력 체제를 환경 문제 각 분야에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 개발에 대해서는 특히 보건 위생 분야를 축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생명을 위한 물” 국제 10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아시아 물 환경 파트너십’ 등으로 안전한 수자원 확보 체제 만들기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 동아시아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한가지 축으로 재해 대책을 든 것은 지지난해 12월에 이란 남동부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니가타현 주에쓰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달(2004년 12월 26일)에는 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 대지진에 따른 해일로 20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는 등 복구 체제의 국제적인 준비가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10년이 되는 이달(1월), 고베에서 ‘유엔방재세계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10년간 국제적인 재해 방지 전략의 지침이 될 ‘효고행동지침’을 채택, 재해 방지에 관한 법제도 준비를 비롯한 5항목에 걸친 우선 행동을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재해 피해국에 대한 중장기 복구 지원을 담당하는 유엔의 ‘국제복구지원기구’ 창설 합의도 이번 회의의 성과입니다.

자연 재해 그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더라도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거나 재해방지대책 등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감재(減災)’ 노력의 중요성은, 고베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강조했듯이 매우 긴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신설하는 ‘국제복구지원기구’의 활동이 하루빨리 궤도에 오르길 바라며, 수마트라섬 지진으로 새로운 과제로 부상한 ‘해일 조기경계시스템’ 준비를 비롯, 아시아 지역의 재해방지와 복구 지원의 협력체제 확립을 여러 각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EU통합의 원천

지난해 EU는 확대를 이뤄 25개국 체제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며 ‘EU헌법’⁵을 채택, 주권 국가의 틀을 넘어 정치 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중·일 만대 걸친 우호 위한 ‘청년 교육 교류 계획’을 추진

조세프 나이 씨(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새로이 가맹한 10개국 중 8개국은 반세기에 걸친 냉전시대에 철의 장막 속에 갇혔던 공산권 국가다. 이들 국가들이 EU 가맹에 매료된 것은 그야말로 ‘유럽 통합’이라는, 이념의 소프트 파워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인류사의 주류를 이룬 군사력 등의 하드 파워 같은 외압적·강압적인 힘과 180도 다른, 대화와 지역 협력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EU 통합의 추진력이 됐으며, 점진주의(漸進主義)에 입각한 인내 강한 합의 형성 덕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서로 반목했던 프랑스와 독일이 신뢰 관계를 구축해 통합의 추진력이 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부전(不戰) 공동체로 향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우호(友好)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개국간 협력에 관한 행동 전략’에 합의해 환경 보호와 재해 방지·관리 등의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 추진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인 방책으로, EU가 추진하는 ‘에라스무스 계획’ 등을 참고해 아시아에서도 같은 제도 확립을 목표로 우선 한·중·일 3개국이 그 선행의 예가 됐으면 합니다.

EU에서는 ‘에라스무스 계획’ 아래, 가맹국 모든 학생의 10%가 타국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간 교류 협정 등으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낮은 지원금’ ‘유학에 대한 불안’ ‘학위 인정·자격 취득에 대한 불안’ 등을 극복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지만, 한·중·일 3개국의 교육 교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환경 정비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1991년에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대학 교류기구’의 활동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 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실적을 토대로 아시아 평화 공존의 초석이 될 ‘아시아 청년교육 교류계획’ 같은

⁵ EU헌법

경제에서 외교·안전보장, 방위, 사법정책까지 각국의 연대와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EU정상회담에서 채택했다. 상임대통령과 EU외무장관직 신설 등도 포함됐다. 발효를 위해서는 모든 가맹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리투아니아와 헝가리가 비준을 마쳤다.

제도로 크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일본이 교류 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을 나라별로 보면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 한국이 3위이며 해외에서 일본의 대학과 전문학교로 진학하는 유학생도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선행적으로 ‘한·중·일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차세대를 짊어질 청년들의 교류가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마음으로 교육 교류 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창립한 소카(創價)대학교에서는 중국과 국교 정상화 이후 중국의 첫 국비 유학생을 받아들였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를 비롯한 세계 41개국 90개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22개 대학, 한국은 5개 대학을 헤아립니다.

또 교육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소카대 베이징 사무소를 올해 안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가학회 청년부와 3억 이상의 중국 청년이 소속된 중국 ‘전국청년연맹’은 깊은 교류를 맺어 왔습니다.

20년 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당시 전국청년연맹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교류의정서를 조인한 이래, 정기적인 대표단 파견 등을 추진하며 지난해에도 새로운 10년간의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이기도 하며, 문화 교류와 왕래가 활발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전후 60년인 올해가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을 서로 바라보며 미래 지향적으로 청년의 교육 교류를 강하게 추진하는, 한·중·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원폭 투하된 지 60년, 전쟁 없는 세기 향해 전진을

핵군축 위한 전문기관 창설

‘무기거래 제한조약’으로 분쟁의 근절을!

교착상태의 북한 핵 문제를 타개

저는 이 미래지향적인 대처로 세 나라가 더욱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타개할 길을 일치협력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에는 비핵무기금지조약(방콕조약)이 있으며, 1997년에 발효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핵무기지대를 동북아시아에도 설치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에 의한 '6자회담'을 성공시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2003년 8월에 개최한 제1차 회담에 이어 지난해(2004년)에는 2회에 걸쳐 6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회담을 언제 재개할지조차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을 국제 사회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지금까지 회담을 개최했던 중국의 베이징이나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북한 핵포기의 구체적인 수순을 협의하기 위한 작업부회를 상주화해 실무적인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작업본부'는 지난해 2월 회담에서 설치를 결정했으며, 6월에 있던 회담에서는 역할을 규정했음에도 아직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비공식적인 협의의 장을 만들어, 거기에서 지금까지 핵개발 정책을 포기한 나라들의 대표를 초청해 지역에 안전보장을 구축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중단 상태에 있는 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여는 노력을 지속하며, 앞으로도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 포럼'으로 그 기능을 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발표한 지 50주년

이어서 제3에 핵군축과 분쟁방지를 위한 대처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핵보유국에 의한 빠른 군축 수행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핵폐기를 요구한 국제 어필인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발표한 지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선언에 서명한 유일한 현존자이며 노벨평화상을 수상(1995년)하신 요세프 로트블라트 박사(퍼그워시회의 명예회장)와 연재대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박사는 2000년에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의 최종 문서에서 '핵무기의 전폐를 달성한다는 핵무기국에 의한 명확한 약속'이 명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진전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유국 중에는 새로운 핵개발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있던 퍼그워시회의의 연차 회합에서도 박사는 '핵보유국이 핵폐기를 향한 교섭을 거부하는 동안에는 핵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최종 문서에서 한 약속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가맹국의 합의에 근거한 것인 이상 그것에 위반하는 행위는 NPT 체제의 토대를 뒤흔들어 핵확산 흐름을 에스컬레이터(단계적 증감)시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5월에는 NPT 재검토 회의를 개최하는데, 10년 전에 NPT가 무기한 연장된 경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핵보유 5개국도 조속히 군축의 틀을 만드는 데 착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서밋의 중점과제로 계속해서 핵무기 불확산 문제가 거론돼 지난해에도 핵물질과 기술의 불법적인 전용 방지를 지향한 '핵무기 불확산에 관한 G8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 행동계획과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에 대한 안전보장구상' 등의 대처가 국제사회에 진정한 설득력을 갖고 받아들여져 더욱 광범위한 협력을 얻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보유국 스스로 성실한 군축 노력이 불가결하지 않을까요.

핵군축은 오랫동안 주로 미국과 소련(현재는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교섭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대처가 정체된 가운데 종래의 방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러 나라 간의 틀 만들기로 교섭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군축, 그리고 핵폐기에 대한 전망이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과 새로운 군사적인 긴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핵무기 불확산'과 '핵군축'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세계는 평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데, 핵확산금지를 위해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대등한 형태로,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달성한다는 핵무기 보유국에 의한 명확한 조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기관, 예를 들면 '국제핵군축기관'과 같은 기관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교섭 바로 직전에 타결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그대로 있는 'FMCT(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조약)'⁶의 성립을 목표로, NPT라는 틀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인도

⁶ FMCT(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조약)

핵보유국과 NPT(핵확산금지조약) 비조인국의 핵능력 동결을 목적으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 등을 의무로 하는 조약. 1995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특별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지만, 의견이 대립돼 아직 실질적 교섭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다.

와 파키스탄과 함께 이스라엘도 동조약에 가맹할 것을 호소하고 국제적인 핵 관리 체제에 참가하도록 종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에 매년 50만명 이상 희생

둘째는 ‘무기거래제한조약’을 조속히 체결하는 일입니다.

저는 6년 전 제언에서 ‘부전(不戰)의 제도화’ 일환으로 분쟁 지역이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에 대한 무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이런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도 높아져, 2003년 10월부터 세계의 무기무역 규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엠네스트, 옥스팜, 소형무기에 관한 국제행동 네트워크(IANSA)라는 세 개의 NGO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운동으로 내년(2006년)까지 재래식무기 이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도록 각국 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6억 개 이상이나 되는 재래식무기가 존재하며, 이런 재래식무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는 해마다 평균 50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2001년에 ‘유엔재래식무기회의’를 열어 비합법적인 거래 방지와 제거와 박멸에 관한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 비합법적인 거래에 관한 대처에 추가해서, 연간 210억 달러(약 21조원)나 되는 막대한 규모와 그 영향을 감안해 합법적인 거래에 관해서도 어떠한 규제의 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합법 또는 비합법에 상관없이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 군비 증강을 후원하는 속에 본래 교육이나 보건위생 등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만 할 예산을 군사비로 전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인간의 안전보장’ 면에서도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캠페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 재래식무기의 세계무역 중에서 88%를 차지하며 특히 과거 4년간에 미국·영국·프랑스 3개국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나라들에게 무기를 수출해 얻은 이익이 원조금보다 많았다고도 합니다.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부전(不戰) 제도화’는 다른 나라의 전쟁과 내전을 이용해 자국의 영향력 강화나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서 탈피하는 일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무게를 더하는 중국과 인도

저는 앞서 올해 개최될 서밋에서 예정된 '온난화 방지'에 관한 G8 토의에 중국과 인도도 참석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G10이 주축이 된 기구구성으로 재래식무기 규제를 강화하는 커트라인에 대해서도 토의하도록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인도의 나라야난 前 대통령과 회견했을 때도 화제가 된 것입니다만, 21세기 세계에서 중국과 인도가 갖는 무게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 존재를 빼놓고 전 세계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나라의 중요성은 4년 전 제언에서도 강조한 점이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중국과 인도의 양 문명이 역사의 지하 수맥에서 자라 온 정신적 전통을 현대 세계에서 소프트 파워로 꽃피우는 일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크게 공헌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 G8에 의해 실시되는 현행 서밋에 중국과 인도를 참가시켜 '책임국 정상회의'라는 형태로 발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창한 것도 그러한 시대적 인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G10으로 확대하는 일은 장래의 과제라 하더라도 올해 개최할 서밋에서 재래식무기 문제를 토의 주제로 취급해, 내년에 있을 제2회 '유엔재래식무기회의'를 향해 주요국이 참가한 조약 교섭을 빨리 개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선한 민중연대를!

차대 짊어질 세대에게 군축교육 추진

셋째는 군축·핵불확산 교육의 추진입니다.

최근 핵확산 움직임이 확대되는 한편 핵군축을 위한 대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민 수준의 의식개발,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1년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10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결성해 그 연구성과를 정리한 보고서 '군축·핵불확산 교육에 관한 유엔의 연구'가 그 다음 해인 200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본래 군축 교육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한 것은 1978년에 개최한 '제1회 유엔 군축특별총회' 때였습니다. 저도 이 특별총회에 보낸 제언에서 '전쟁의 잔혹성과 핵무기의 두려움을 보다 광범위한 민중에게

계몽하고 그 실태를 알리는 행동'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민중 수준의 군축교육을 추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래 유엔에서는 1982년부터 10년 동안 '세계군축캠페인'을 진행했으나, SGI에서는 그 개시에 선구적인 입장에서 유엔 홍보국과 히로시마·나가사키 두 시와 협력해 같은 해 6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핵무기 - 현대 세계의 위협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그 후 핵보유국을 비롯해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가 다른 나라들도 순회했으며, 방문한 시민은 연 120만 명을 헤아립니다. 냉전 후에도 '전쟁과 평화전'과 내용을 쇄신한 '핵무기 - 인류의 위협전' 등의 순회전시로 평화를 바라는 민중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며 세계 부전의 조류를 고조시켜 왔습니다.

또 1998년부터는 평화와 인도에 공헌한 폴링 박사의 사상과 생애를 소개하는 '라이너스 폴링과 20세기'전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개최해 1백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이 전시에 대해서도 "유엔 총회가 2000년에 결의한 '군축교육' 이념에 일치한 훌륭한 개최였다"(다나파라 유엔 사무총장<당시>)라는 등 관계자들에게 높이 평가받았으며,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군축·핵불확산 교육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속에서 동(同) 전시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테러를 비롯한 새로운 위협이 대두돼 불안정함을 더하는 지금이야말로 국제 사회가 하나가 돼 군축·핵불확산 교육을 추진하여 시대를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앞에서 말한 보고서의 서문에서 "핵무기에 의한 파멸적 상황이라는, 언제나 존재하는 공포를 모른 채 전혀 새로운 세대의 인간이 성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 세대의 인간에게는 충격적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축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지와 무관심이 이대로 확산된다면 아무리 법제도를 정비하더라도 확고한 평화의 흐름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특히 학교 교육 내에서 군축·핵불확산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서에서 추천하듯이 실제적인 문제에 따르는 형태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행하여 비판력과 고찰력을 높이는 '참가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거나, 대학교에서 '평화학'을 커리큘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 교육에 맞춰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의식개발 추진이 중요하며 핵폐기를 제일의 유훈(遺訓)으로 한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창가학회 제2대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을 가슴에 새기고 평화운동을 추진하는 SGI 또한 앞으로도 강한 인내를 갖고 군축과 핵불확산 교육을 계속 추진할 결의입니다.

'SGI현장'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현

끝으로 발족 30주년을 맞이한 SGI의 기본 정신을 재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1975년 1월에 51개국·지역이 모여 발족한 이래 SGI의 ‘인간주의’ 연대는 이제는 190개국·지역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것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근본으로 각국에서 훌륭한 모범 시민으로 행동하고 사회에 ‘희망’과 ‘신뢰’의 연대를 넓힌 가운데 한걸음 한걸음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 근본 정신은 10년 전에 제정한 ‘SGI헌장’의 다음 내용을 포함한 10개 항목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SGI는 생명존엄의 불법을 기조로 전 인류의 평화, 문화, 교육에 공헌한다.”

“SGI는 진리 탐구와 학문 발전을 위해 또 모든 사람들이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향수(享受)하기 위한 교육 흥륭에 공헌한다.”

“SGI는 각각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하는 국제 사회 구축을 지향해 간다.”

앞으로도 이 ‘SGI헌장’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현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대화의 물결을 넓히며 평화와 공생의 지구 사회 건설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SGI 발족 30주년인 올해는 창가학회 창립 75주년에 해당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창가교육학회’를 모체로, 마키구치 초대 회장과 도다 제2대 회장이 교육자인 점이 상징하듯 창가학회는 창립 이래 ‘교육’으로 평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정신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유엔의 ‘인권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두 가지 국제기구 설치를 호소함과 동시에 ‘군축·핵불확산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SGI에도 엄연히 맥동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관에 입각해 인간교육이라는 선(善)의 결합을 세계에 넓히리라! 바로 거기에 인류의 영원한 승리의 길이 있다 - 이것이 마키구치, 도다 두 회장의 유훈이었습니다.

우리 SGI는 이 선사(先師)의 깊은 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깨어 있는 민중에 의한 ‘평화’와 ‘인간주의’의 연대를 어디까지나 넓히고자 합니다.